

### I. 예술에 대한 우리의 편견

#### 1. 예술은 인간 정신의 고급 산물이다?

- 1) 예술이란 일상생활과 따로 떨어져 있는 생존의 차원과는 다른 고급의 문화적 산물임
- 2) 무엇이 진정한 예술을 만드는가?
  - 중요한 것은 진정한 예술의 의미에 대해 숙고하는 것임
  -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게 된 엄청난 재능을 가진 소수의 인간이 자신의 재능을 이상의 습관과 생존의 문제와는 다른 고상한 의도를 가지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을 만들고, 그 엄청난 작품이 아름다울 때 이것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상식적인 의미의 예술임
- 3) 요즘의 현대 예술
  - 데미언 허스트 : 죽은 말을 냉동시키고 톱으로 토막 내 전시함
  - 리처드 롱 : 자연에 존재하는 돌덩이를 자신의 마음대로 배치하여 시간과 흔적을 공유하려는 대지 예술
  - 생트 오를랑 : 서양 미술에 나오는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닮기 위해 성형수술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개조하는 프랑스의 행위 예술가

#### 2. 예술의 진정한 가치는 모방하는 것이다?

- 1)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 원형이 존재하므로 원형을 최대한 알맞게 복원 · 모방하고 그것들을 간접적인 형식이나 감상자들에게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예술의 일임
- 2) 예술은 진리와 하나가 되고자 하는 노력으로 인정하는 것이 미메시스 적 예술관임
  - 플라톤
    - ① 관념으로부터 실재, 실재로부터 다시 예술 작품으로 가치가 하락하므로 플라톤은 예술이 우리 진리를 왜곡한다고 경계함
    - ② 모방으로서의 예술을 주장함(대표적인 모방기법은 회화에서의 원근법)
  - 레오나르도 다빈치 : 시점이 신에서 인간으로 전환하는 투시적 원근법의 대표적인 인물

#### 3. 예술은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이다?

- 1) 고대의 경우 아름답다는 것은 좋은 것이고 좋은 것은 생존에 유리한 것이고, 이것이 우리가 살면서 알아야 하는 도움이 되는 것, 즉, 진선미 일치의 세계
- 2) 아름다움의 개념은 시대,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규정하기 힘들(19, 20세기 작품들은 문제작에서 시작된 것들임)
- 3) 현대 예술 : 아름다움이라는 정서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적 체험으로서의 충격, 숭고, 혹은 추함의 미라는 역설적인 개념까지 등장하게 됨

## II. 고대 예술의 기원

### 1. 문화, 테크네, 예술이란 무엇인가?

#### 1) 문화

- 자연을 변형·가공하여 인간적 의미를 생산하고 이를 소통하는 과정과 결과물, 혹은 그 과정

#### 2) 테크네

- 사물(자연)에 대한 정통한 지식을 바탕으로 인간 삶에 유용한 것을 만드는 것 혹은 그 결과물

#### 3) 예술 : 테크네와 뮤지케 두 구성요소로 가지는 문화적 산물

### 2. 주술적 예술과 세계 통합으로서의 예술

#### 1) 서로 닮은 것끼리 통한다는 유사성의 원리에 따라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새기는 축성의 과정을 통해 그 이미지에 전달되어서 동일한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믿는 주술의 힘

#### 2) 우리가 이미지를 믿는 것은 그 이미지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, 혹은 특정 공동체의 믿음을 그 이미지에 삽입시키기 때문임

#### 3) 예술은 원래 제의에서 비롯된 것, 신비롭기도 하며 두렵기도 한 어떤 알 수 없는 힘이 그 제의의 주인이며 주재자는 무당이나 주술자, 무당의 이러한 점신의 상태를 마니아라 부름